

11/15/20

설교 제목: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32 장 1-32 절

- (1)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 (2)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 (3)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 (4)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 (5)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 (6)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 (7)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 (8)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 (9)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 (10)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 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떼나 이루었나이다
- (11)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옵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 (12)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 (13)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 (14)암염소가 이백이요 수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수양이 이십이요
- (15)젖 나는 약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끼나귀가 열이라

- (16)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 (17)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엿것은 뉘 것이냐 하거든
- (18)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 (19)그 둘째와 세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 (20)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던대
- (21)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 (22)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 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루를 건널새
- (23)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 (24)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 (25)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 (26)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 (27)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 (28)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 (29)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 (30)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 (31)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 (32)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20 년간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 집에 거하면서 쌓인 야곱과 라반 사이의 찝찝했던 문제들이 둘 사이 상호불가침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깨끗이 청산됐습니다.

이제 야곱은 20 년간 살았던 외삼촌 집을 도망쳐 나온 마음의 부담을 훌훌 털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뚝뚝하게 본향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환희에 차 달려가야 하는 그 본향 길이 야곱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형 에서 때문입니다.

본향에 들어가서 형과 맞닥뜨릴 생각을 하니 좀처럼 발걸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을 죽인다고 했는데.....

두려움이 엄습하여 가슴을 짓누릅니다.

형에게 지은 죄가 있는 야곱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런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계신 분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인해 무거운 발걸음을 떼는 야곱에게 당신의 사자들을 보이십니다.

(1)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같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구어내지 못합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볼 요량으로 사자들을 앞서 보냅니다.

(3)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4)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5)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사자들을 시켜 형 에서에게 자신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고 알립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혹시라도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이나 장자권을 주장하려고 오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여 자신을 해칠까봐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장자권을 주장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먼저 알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사자들을 통해 형 에서에게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고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야곱은 메시지에서 형 에서를 '내 주'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극도로 낮춥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 온 사자들로부터 형 에서가 400 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6)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가 400 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낸 야곱을 20 년 동안 버르다가 이때다 싶어 해하려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비록 자신을 속인 동생이지만 20 년만에 다시 상봉을 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환영하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전해들은 야곱은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형이 자신을 해하러 온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일련의 조치를 취합니다.

(7)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8)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조치를 취한 후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9)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떼나 이루었나이다

(11)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옵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12)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이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이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이니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자신에 주신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이 하리라 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하고도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방도를 찾습니다.

(13)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4)암염소가 이백이요 수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수양이 이십이요

(15)젖 나는 약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끼나귀가 열이라

(16)그것을 각각 떼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17)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문기를 네가 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엿 것은 뉘 것이냐 하거든

(18)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19)그 둘째와 세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20)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것이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하여 각각 떼로 나누고 그것들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각 떼로 하여금 자신보다 앞서 서로 거리를 두어 건너가도록 합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형 에서를 만나 그가 네가 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엿 것은 뉘 것이냐고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다고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야곱은 준비한 예물을 먼저 보내고 자신의 무리와 함께 밤을 지내다가 그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 한 아들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무를 건너게 합니다.

(21)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22)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 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무를 건널새

(23)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 한 아들들까지 모두 보낸 후 홀로 남은 야곱은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24)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씨름'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구절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꼭 붙들었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25)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26)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환도뼈가 어긋났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겨루어 이긴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십니다.

이 이름 속에는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해 야곱으로 하여금 당신과 겨루어 이기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27)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어린 아들이 이기지요.

만약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워서 어린 아들을 때려 눕히고 이긴다면 그 아버지는 어디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아버지라면 어린 아들이 악착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고 승리의 기쁨을 어린 아들에게 안겨 주고 싶어 이길 수 있음에도 저줍니다.

실제로 야곱이 제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일부러 저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 어미의 뱃속에 있었을 때 이미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복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하심으로써 이제부터 새 삶을 살라고 말씀 하십니다.

원래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태어날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 붙여진 이름입니다.

발꿈치를 왜 잡고 나왔겠습니까?

형과의 싸움에서 지기 싫어서 발버둥치다가 발꿈치를 잡은 것이지요.

야곱은 이제껏 이름대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발버둥 치며 살아 왔습니다.
형에게 술수를 써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으며 그로 인해 도망자가 되어 외삼촌 집에 거하는 동안에도 외삼촌과 피말리는 머리 싸움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를 굴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이긴 자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과 씨름을 한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29)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자신과 씨름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라도 좀 더 명확하게 그 이름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답 대신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의 얼굴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죽을 수 밖에 없는 야곱을 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한도뼈가 위골된 야곱은 이때부터 다리를 절었습니다.

(31)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32)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비록 육체적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야곱에게서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영광의 흔적이요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 죽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은혜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대면하여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에는 증표가 요구됩니다.

이 영광의 증표로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

그 흔적은 내 계산 내 방식 내 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세상에서 지녀야 할 흔적입니다.

이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의 증표를 가지고 계신지요?